

‘信用本位 열린경영’으로 승부

GOEUN 창사 17주년 기념식 · 체육행사

GOEUN(회장 최호열)이 6월5일 사육에서 창사 17주년 기념식을 갖고 인근 설운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통해 사원들의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호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0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창사 17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신용본위의 열린 경영으로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기념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전달식과 해외여행권을 전달하고 앞으로 GOEUN이

발전해 나가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GOEUN은 현재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고은종합전기(주), (주)한국정보, (주)고은기업 등 4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고은종합전기(주)는 각종 전기공사 시공, (주)한국정보는 포천신문 발행, (주)고은기업은 서울지역에 전기공사 시공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장기근속 유공으로 기념패를 받은 사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0년 장기근속 ▶전규선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전무이사 □3년 근속 ▶김영송 경기북부



전기안전관리공사 기술부 부장 김영송, 김영복 포천신문 편집국장. 최 회장은 10년 장기근속자인 전규선 전무에게 하와이 5박6일 여행권을 지급하고 3년 근속자인 김영송 부장과 김영복 국장에게는 1박2일 휴가와 더불어 금반지를 지급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골프회 5월 정기라운딩



포천신문골프회 5월정기라운딩에서 이수복(오른쪽)회원이 우승을 차지해 박노현(왼쪽)회장의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포천신문골프회(회장 박노현)는 5월31일 정기라운딩을 개최하고 회원간의 건강과 우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자연경치 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개최한 이날 운동에 나선 회원들은 핸디보다 14타까지 줄이는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월례회에서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주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폐암선고를 받고 1주일도 안돼 세상을 떠났다"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최호열 상임고문(포천신문 발행

인)은 이날 불참하게 된 회원들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골프회 회원여러분들이 매월 정기적인 모임과 운동을 통해 건강과 하시는 사업마다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겨울 연수의 건에 대해서는 오는 8~9월 중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기라운딩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조성선 회원▶우승 이수복 회원▶준우승 양중진 회원▶장타상 한희준 고문▶근접상 박노현 회장▶행운상 윤이용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위원장 이상일, 총무 김형석 추대

본지 조사위원회 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성선)는 6월7일 오후7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 조성선 위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이상일 부위원장이 위원장, 김형석 위원이 총무로 각각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열 발행인은 "그동안 위원장직을 맡아 노력해오신 조성선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조사위원회가 이상일 위원장님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성선 위원장은 "부족한 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리며 앞으로 고문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부위원장은 "비록 부족하지만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로 추대된 김형석 위원은 "여러가지 많은 일이 많아 걱정이지만 위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총무직 수락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추대된 임원은 오는 14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후 임기가 시작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체육대회 포천시 선수단 해단식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포천시 선수단을 환영하는 커피퍼이드와 해단식이 6월5일 오후 포천시 신용동 및 소흘읍 송우리 일원과 포천빈윌트홀에서 개최됐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①6 직박구리 [brown-eared bulbul]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수다쟁이의 대명사

아침햇살 가득한 거실 앞 나뭇가지에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직박구리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날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시 주변의 야산이나 공원, 그리고 아파트 화단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생김새가 수수해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새입니다. 최근 들어 적박한 도심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수다쟁이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로 몸 전체가 잿빛을 띤 어두운 갈색이며,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겨울에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가 바로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의 울음소리는 아침과 석양이 내리는 저녁때가 다르고, 흐릴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바람이 뜸이 불 때가 다르고,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펄펄 쏟아질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담아 울어대는 새는 아마도 직박구리 뿐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수다쟁이 콘테스트에 나가면 당연히 대상은 이들의 몫이 될 겁니다. 필자가 처음 탐조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비둘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직박구리를 발견하고 어설프게 사진에 담고서 흥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탐조인구가 늘어나면서 관심밖이었던 이들의 모습이 탐조 입문자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유명세를 타는 새입니다. 무쓰를 발라 머리 깎을 바짝 새운 대머리 총각 같은, 전혀 낯설지가 않은 모습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지요. 직박구리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이들이 도심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그들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비교적 거리를 잘 주는 편이며 암수가 늘 같이 붙어 다니다가 한 녀석이 빠르르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가면 다른 녀석도 곧바로 따라가 두 녀석이 찰싹 붙어 항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먹이도 도심 속의 정원이나 가로수 등에 심어

치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과일나무에 열매를 남겨두어 먹이 부족할 한겨울에도 새들이 먹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까치 밤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까치뿐만 아니라 직박구리에게도 중요한 겨울 식량이 되는 것이겠지요. 지난 겨울 직박구리의 까치밥식 사정면을 사진에 담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우리고장에는 갈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어 팔배나무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올 겨울에는 까치밥을 따먹는 직박구리의 모습을 꼭 담아 볼 계획을 세워 봅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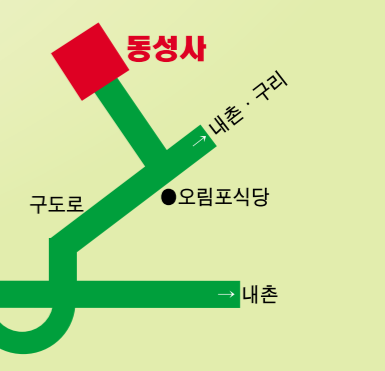
아파트 드레스룸 · 주방하드웨어 부품 생산

미래형 최첨단 제품만을 연구 · 생산하는 동성사



대표 윤이용

- 근면
- 성실
- 창조



◆생산물품◆ 인테리어 부품, 가구 및 주방하드웨어 부품
 ◆본 사◆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031)532-2123, Fax. 031)532-2122